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
배 포 일	2020. 4. 9. / (총 2매)			
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총괄팀	팀 장	이 상 원	전 화	043-719-7840
	담 당 자	김 갑 정		043-719-7848
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	팀 장	한 명 국		043-719-8190
	담 당 자	정 윤 석		043-719-8192
대한진단검사의학회	이 사 장	권 계 철		02-795-9914
	신종코로나 대책위원	홍 기 호		

## 코로나19 단기 대량 검사 위한 “취합검사법” 프로토콜 제작

- ◇ 질병관리본부·대한진단검사의학회, 감염 위험군 대상 대규모 선별 검사 가능한 취합(Pooling)검사 프로토콜 공동마련
- ◇ 다수 검체 한 번에 혼합, 검사하는 방법으로, 높은 민감도유지 확인
- ◇ 환자진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, 감염위험군의 선별검사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예정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(이사장 권계철)은 여러 사람의 검체를 취합 한 번에 검사함으로써, 감염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취합검사법(Pooling) 프로토콜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.
-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,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,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, 증상은 없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 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원자 등 감염 위험군에서 감염 선별에 유용하다.

○ 본 프로토콜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소속 3개 의료기관이 협업하여 650회 평가 시험을 거쳐 우리나라 실험 상황에 맞게 제작되었으며,

- 프로토콜 적용 시 10개 검체를 혼합하여 시험하여도 개별 검체 대비 96% 이상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다.

□ 현재 취합검사법은 빠르고 대량의 검사를 위해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, 세계적 의학전문지인 미국 의학회지(JAMA)에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개 된 바 있다

\* 주요내용 : 한번에 10개의 검체를 혼합하는 pooling 법으로 바이러스 검출 문제 없음

\* JAMA Published online April 6, 2020, Sample Pooling as a Strategy to Detect Community Transmission of SARS-CoV-2

□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은 “취합검사법은 코로나19 확인 검사로는 사용되지 않고, 증상이 없는 감염 위험군의 질병감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, 환자진료 정확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”고 언급하면서,

○ “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 환자발견으로 질병예방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